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정책 보고서

KROSS



CONTENTS

1	산학협력단 교수산학연구지원사업	1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우수연구자	4
3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6
4	2025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10
5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인터뷰	14

산학협력단 교수산학연구지원사업





1

산학협력단 교수산학연구지원사업 #1/3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내 교원 및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강화와 우수 연구 성과 창출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은 체계적인 교수산학연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 및 연구자 만족도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수산학연구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연구 수행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간접비 연구소·학과 귀속지원금

연구자들이 수행한 과제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을 기준으로 연구책임자와 소속 연구소 및 학과에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연구 활동을 위한 소모품 구입, 연구 자료 확보, 연구 보조 인력 고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널리 확산하는 것은 연구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발표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에게는 논문 게재료 및 교정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의 학술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사후 연구원 활용 지원

우수한 박사급 연구 인력을 확보·활용하는 부분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박사후 연구자들이 연구 경험을 쌓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의 연구 인력 풀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모과제 신청 지원

외부기관의 다양한 공모 과제에 대한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 과제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획 및 행정 비용을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연구비 수주율을 높이고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대학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연구 협력의 문을 열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연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2024년 산학협력단 만족도 조사 중 산학연구지원사업 만족도 조사(400명 참여)에 따르면,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73.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주요 사업들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100점 환산
간접비 연구소·학과 귀속지원금	4.8	32.5	62.8	69.9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7.3	19.8	73.0	73.8
박사후 연구원 활용 지원	6.5	36.0	57.5	67.4
공모과제 신청 지원	6.3	26.3	67.5	71.0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8.8	34.8	56.5	66.4
산학연구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	2.5	24.3	73.3	73.8



1

산학협력단 교수산학연구지원사업 #3/3

간접비 지원사업 규모와 딜레마

대학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인 간접비는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행정·인력 지원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지출액은 약 149억원이었고, 이 중 약 **49억 원(33%)**이 연구지원사업에 투입되었다. 이는 거점국립대 평균 비율인 32%와 비교해 보아도 타 대학의 지원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들은 간접비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연구지원사업의 규모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 진흥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지원 금액을 동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대학이 직면한 현실이다.

지역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심축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과 사정에 맞는 자체적인 R&D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연구지원사업을 위해 일정 간접비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사회가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연구 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간접비의 단순한 규모 확대보다는, 그 활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성이 지역대학의 연구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연구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면 지역대학의 연구 경쟁력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과 함께 꾸는 하나의 꿈, **미래산업 글로벌 리더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우수연구자





2 산학협력 우수연구자 #1/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내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자 예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인정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① 산학협력단 명예의 전당과 ② 이달의 우수연구자 선정 사업이 대표적이다.

① 산학협력단 명예의 전당

-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 누적 간접비 징수액이 우수한 연구자 선정
- 태백관 1층 로비에 영상물 홍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명패 게시를 통한 홍보

② 이달의 우수연구자

- 매월 1명의 우수연구자를 선정 및 포상 지급
- 강원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확산
- ※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분기별 1명 별도 선정
(평가항목은 연구비수주(70%), 지식재산권(15%), 기술료 수입(15%))

우수연구자 성과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이러한 예우 사업들은 단순한 포상을 넘어 연구자들의 긍지를 높이고 후배 연구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산학협력단 명예의 전당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누적 간접비 징수액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꾸준히 연구에 매진해 온 연구자들의 공적을 기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달의 우수연구자에는 높은 연구비 수주 실적을 기록한 연구자들이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지속적인 연구 참여와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 연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9월 25일 202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행사 기간에 '우수연구자 성과공유회 및 간담회'가 KNU 스타트업 큐브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산학협력단 명예의 전당 등재 우수연구자 41명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노고를 격려, 각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학협력단장이 직접 연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자리는 연구 성과를 공유·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넘어, 대학의 연구 정책 방향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사업의 지속성과 개선의 필요성

연구자 예우 사업은 연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유도하여 대학의 연구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선정 기준, 보상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실적에 치중된 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연구자 예우 사업은 더욱 효과적인 연구 진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문의) 산학협력단 산학경영지원부 산학진흥팀

☎ 033.250.6936

✉ aquagreen@kangwon.ac.kr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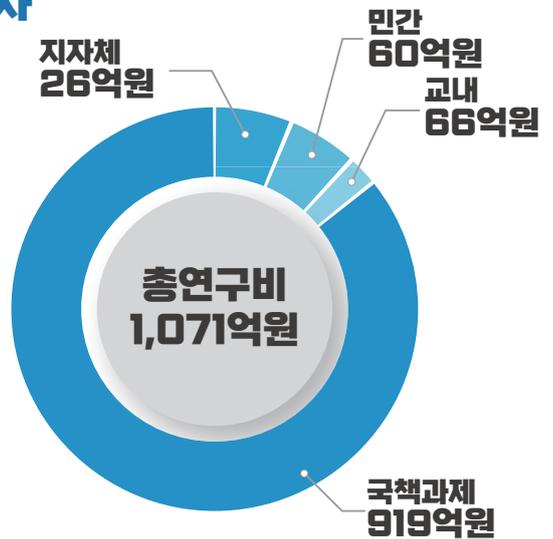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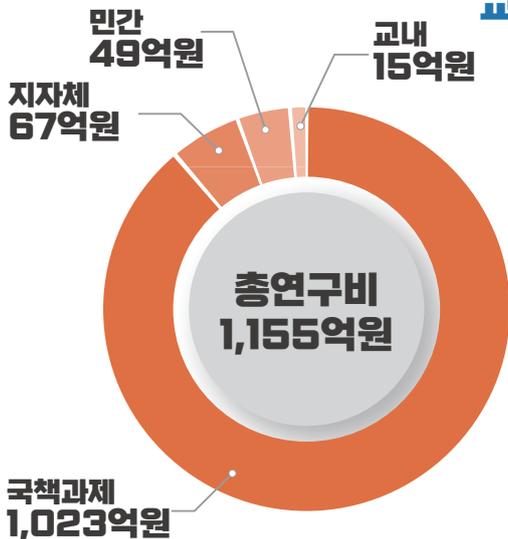
3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1/4



교육부는 2025년 8월 29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8월 공시를 오픈했다. 대학알리미에 업로드 되는 대학정보공시 항목은 14개 분야·65개 항목·10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공시대상 대학은 223개 대학, 141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으로 총 408개교이다(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의 통합으로 전년대비 1개교 감소). 항목별로 4·6·8·10월에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규정·규칙 등 제·개정 시 수시 공시된다. 특히 이번 8월 공시는 연구실적·연구비 수혜실적·산학협력단 회계와 관련된 지표를 공시하며, 6월에 공시된 특허·기술이전·창업·기술지주회사운영 실적 지표와 함께 비교해 본다면 대학별 산학협력의 보완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함께 대학이 소재한 도시의 지역적 특색과 산학협력 정책의 개연성도 고려할 수 있다면 지역공헌을 위한 산학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할 수있을 것이다.

이번 KROSS는 교원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강원대학교와 유사한 규모인 경상국립대학교와의 산학협력 관련 데이터와 소재도시의 현황을 비교한다.

3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2/4



3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3/4

주요지표 비교



구분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거점국립대평균
재학생 수	16,925명	15,263명	15,603명
전임교원 수	1,035명	1,050명	1,093명
총연구비	1,115억원	1,071억원	1,529억원
기술료수입	16억원	13억원	20억원
특허출원	341건	438건	215건
교원창업	16개사	8개사	8개사
지주회사 자회사	38개사	21개사	26개사
산단운영수입	1,514억원	1,562억원	2,052억원

3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4/4

소재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면적	1,116.37km ² (서울 1.5배, 강원자치도 6.6%)
인구구조	유소년(0-14) 30,486명(10.7%/전국평균 10.8%) 생산가능인구(15-64) 191,665명(67.1%/전국평균 69.7%) 고령인구(65세 이상) 63,079명(22.2%/전국평균 19.5%)
교통	철도(ITX청춘·경춘선·동서고속철도(예정))· 고속도로(중앙·서울-춘천)
지정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2022)·교육발전특구(2024)
소재기관	대학 강원대·춘천교대·한림대·한림성심대· 송곡대·한국폴리텍대 ※ 사립대 포함 6개 대학
	기관 강원연구원·강원TP·강원지역산업진흥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기업 (바이오)에이프릴바이오·휴젤·바디텍메드 (IT)더존·네이버·삼성SDS
지역축제	강원연극제·의압제·닭갈비막국수축제·인형극제·강원바이오엑스포 등

**인구 30만
특례도시 달성 목표**

소재도시	경상남도 진주시
면적	712.8km ² (서울 1.2배, 경상남도 6.8%)
인구구조	유소년(0-14) 37,945명(11.3%/전국평균 10.8%) 생산가능인구(15-64) 226,918명(67.2%/전국평균 69.7%) 고령인구(65세 이상) 72,452명(21.5%/전국평균 19.5%)
교통	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호)· 고속도로(남해·통영-대전)
지정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2019)·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2024)
소재기관	대학 경상국립대·진주교대·연암공과대·진주보건대 ※ 사립대 포함 4개 대학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항공전자기기기술센터· 한국실크연구원·국방기술품질원·한국저작권위원회
	기업 (전직물)신화직물·무림페이퍼 (IT)한국남동발전·코엔서비스 (항공)하이즈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 (기계)아이티알인티스트리즈·디엔오모티브·세일공업·한국마그넷 ※ 전국 실크시장의 70% 점유) 수입산·합성섬유로 인해 경쟁력 약화
지역축제	민속 소림겨루기대회·논개제·뮤직&미디어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탈춤마당

**7,775억원 규모
인구정책 추진**



- (출처) 국립대학주요지표 비교 보고서_산학전략실
- (관련문의) 산학협력단 산학전략실

☎ 033.250.6927

✉ jinu@kangwon.ac.kr

202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4

202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1/4

‘함께 그리는 혁신, 하나의 미래’ 202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지역과 함께 미래를 열다



2025년 9월 28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는 지난 6일간 펼쳐졌던 ‘2025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의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함께 그리는 혁신, 하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주간 행사는 단순히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대학 내 12개 산학협력 관련 부서의 역량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행사 기간 내내 강원대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의 경계를 넘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열정이 교차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4

202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2/4

협력의 시너지, 지역과 함께 '하나의 미래'를 그린다

이번 산학협력주간은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총 12개 부서의 역량을 통합하며 좋은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양적 규모를 강조하기보다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결속하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강원대학교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행사에는 대학 구성원인 교원,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계자, 지역혁신기관, 지역주민, 그리고 기업 관계자까지 모두가 참여하며 '함께 그리는 혁신'이라는 슬로건처럼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9. 23.(화)	9. 24.(수)	9. 25.(목)	9. 26.(금)	9. 27.(토) ~ 28.(일)
강원대학교 창업AI+X 해커톤 데모데이 60주년기념관 13:00~17:00	강원벤처포럼 서암관 13:00~18:00 지역-대학 상생발전 포럼 60주년기념관 14:00~16:00 산학협력 MOU 및 캠퍼스 TECH 세미나 서암관, 사이버랩 15:00~18:00 특화분야 매칭데이 K-큐브 16:00~19:00	지·산·학 컨퍼런스 글로벌경영관 14:00~16:00 우수연구자 성과공유회 K-큐브 16:30~18:00	유망기업 IR 및 컨설팅 서암관 10:00~17:00 슬기로운 직장생활 EAP 심리상담 K-큐브 14:30~16:00	메이커 페스티벌 K-큐브 09:00~18:00 

9. 23.(화) ~ 9. 25.(목) 상시행사

산학협력 홍보부스	학생창업 플라마켓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지학협력본부 홍보관
함인섭광장			

산학협력단이 전체 행사를 총괄하고 RISE사업단, KNU창업혁신원, 강원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SW중심대학사업단, 기술지주회사 등 12개 부서가 힘을 합쳤다. 이들의 통합적인 기획과 운영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행사의 깊이를 더했고,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했다.

4

202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3/4

'함께 그리는 혁신'의 현장, 핵심 프로그램 성과 분석

행사는 총 14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함께'라는 가치를 실현했다. 그중 메이커 페스티벌과 지역-대학 상생발전 포럼은 '함께 그리는 혁신'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KNU 스타트업 큐브 일대에서 열린 메이커 페스티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총 1,400여 명의 춘천 시민과 대학 구성원이 참여해 18개의 메이킹 체험 부스를 즐겼다. 그 중 13개는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되었으며 릴레이 게임, 가상현실(VR), 레트로 게임, 영화 상영관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 푸드산업 관련 10개의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다. 축제 현장에는 활기 넘치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강원대학교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방적인 캠퍼스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9월 24일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은 지역-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관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RISE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 확산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자리였다.



4

202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4/4

‘하나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 발걸음

이번 산학협력주간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통해 ‘하나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9월 25일 글로벌경영관 AMP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이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의 혁신적인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산학협력의 중요성과 참여 기회를 안내했다.

산학협력단 산학기술혁신센터장의 발표를 통해 산학협력단 현황 및 주요 성과, 성공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의 미래와 확장 전략을 논의하였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함인섭 광장에서 운영된 홍보 부스는 강원대학교의 개방성과 지역 연계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소통 창구였다. 본 부스는 강원대학교 지학협력본부 및 센터의 주요 추진사업과 성과를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 편익 제고 및 지역 정책 제언 주제 발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THE F1RST MOVER’ 비전을 향한 새로운 출발

이번 산학협력주간은 강원대학교의 산학협력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분야 전반에 걸친 발전 모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역 주민과 기업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여 Open Campus 이미지를 제고하고,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학협력주간의 성공은 강원대학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강원대학교의 역할이 기대된다.



· (관련문의) 산학협력단 산학전략실

☎ 033.250.8283

✉ kim0517@kangwon.ac.kr

산학협력단 직원 인터뷰





5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인터뷰 #1/4

계절이 바뀌는 순간마다 캠퍼스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품어간다.
가을이 깊어지는 지금, 연구와 산학협력의 현장은 한해의 성과를 마무리하기로 분주하다.

이번 호 직원 인터뷰에서는 산학연구지원부에서 근무하는 **김정아** 주임의 이야기를 담아,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이어온 노력과 열정을 조명한다.
수많은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연구자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온 세심한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연구지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역할은 단순한 행정이라 아니라,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 현장을 지켜내는 모습 속에서
산학협력의 또 다른 힘을 발견한다.

이번 글을 통해 업무 속에서 느낀 보람과 고민,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깊어지는 계절의 흐름처럼, 이 글이 독자들에게 은은한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산학연구지원부 | 김정아 주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및 담당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학연구지원부 용역과제팀에서 근무 중인 김정아 주임입니다. '23년 2월에 입사해 약 2년 간 정부과제팀에서 근무하였고, 올해 6월부터 용역과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회계(신임교원정착연구지원사업, 코스 운영 기타), 지자체(보조금사업),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사업(차세대 반도체)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의 과제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현재 130~140개 정도 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임교원 정착연구 지원사업' 인데요, 신임교원 분들이 대학에 유연하게 자리잡고, 교육·연구환경을 원만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임교원이 100명 이상으로 과제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팀을 옮긴지 얼마 안되었는데, 정부과제팀과 용역과제팀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부과제팀에서는 주로 정부R&D 과제를 담당하다보니, 대부분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면 용역과제팀은 지자체, 정부부처, 민간기업체 등 규정·지침이 다양하고, 시작·종료 시기도 과제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정부과제팀 일 때는 주로 연구원분들과 소통할 일이 많았는데 현재 팀에서는 산학협력단 구성원분들과 교류할 일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학연구지원부는 산단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조직인데, 부서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서는 대부분 연구비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서로의 고충도 자주 나누는 편입니다. 덕분에 오고가는 대화 속에 서로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분위기가 산학연구지원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처음 겪는 다양한 사례들을 마주할 때가 많은데, 특히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특별한 문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더 끈끈해지고, 즐겁게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 사업비로 '키위', '파인애플' 집행해 본 적 있으신 분? 저요! 저 집행해본 적 있어요!
재료비로 '소'를 사도 되냐는 수의대 교수님의 문의 전화에 다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



5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인터뷰 #3/4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인가요?

저는 스스로를 '걱정인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일에도 혹시 모를 상황들을 미리 떠올리다 보니 걱정이 많은 편인데, 이 성향 덕분에 업무를 처리할 때 세부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때로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동료분들께서 "생각보다 큰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며 다독여 주시곤 합니다. 그런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되고, 다시 차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걱정인형

곰두리인형

산학협력단 입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학과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산학협력단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산학협력단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기관인지는 잘 알지 못해서 교수님께 면담을 요청드렸습니다. 마침 교수님께서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고 있던 시기라, 산학협력단이 하는 업무·장점·개선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입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사 직후에 한가지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은 2일차 되는 날이 제 졸업식 이었는데, 아직 대화도 몇마디 나눠보지 못한 신입 직원에게 팀원분들께서 직접 꽃다발도 준비해주시고 진심어린 축하 인사를 해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 들리시나요 !!!!!)

연구자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나 특별했던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근무하는 동안 많은 연구진분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정부과제팀에서 2년 넘게 동일한 부처의 연구 과제를 담당하며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진들과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안내 메일에도 늘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교수님, 국외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늘 인사를 건네주시는 교수님, 연구를 마무리 하며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남겨주시는 연구원님까지... 소소하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순간 순간의 업무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되는 특별한 기억입니다. 이렇듯 저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절을 1순위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인터뷰 #4/4

연구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체감하는 산학협력단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분야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담당자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산학협력단은 연구진이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새로운 궁금증과 마주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역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과 산학연구지원부가 키워가고 있는 신뢰관계는 산학협력단의 큰 자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담당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연구진은 연구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희 산학연구지원부의 노력이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단이 연구지원 부문에서 더 발전하는데 필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최근 연구지원 시스템과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RIS 시스템 통합이나 RCMS 통합 모듈 개발 등 시스템 차원에서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연구진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 연구지원 업무를 매일 수행하는 담당자조차 즉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연구진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게 인지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변화를 보다 먼저 파악하고 적응하여, 연구진분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외적으로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나 취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취미로 시작한 크로스핏을 2년 8개월 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6번 꾸준히 하고 있구요.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근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위해 열심히 합니다. 업무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지만 최근에는 시간대 맞는 친구들과 대회에도 출전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의 역도체육관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크로스핏은 배울 수 있는 동작이 매우 다양하다는 매력이 있는데요. 하나의 동작을 성공하고 다음 단계 새로운 동작에 도전을 거듭하며 쉽게 질리지 않는 운동 같아요. 개인적인 성취감은 덤이구요. 가끔 핸드크림 바르는 것보다 탄마가루 바르는게 익숙하다고 생각되는건 비밀!! 🤔 꾸준히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할수 있는 크로스핏, 함께 머물러 하시지 않을까요? ㅎㅎ

다음 인터뷰 대상으로 연구처에서 근무중인 김연우 사원을 추천합니다. 입사 직후 연구처로 발령이 나서 자주 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파견 생활이나 업무, 연구처의 분위기에 대해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행처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인 : 장철성(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편집인 : 산학협력단 산학전략실

Tel 033.250.8283 **E-mail** kim0517@kangwon.ac.kr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태백관 2~4층